

“원불교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교육적 기능”에 대한 논평:

— 소태산 대종사의 남녀 평등사상 —

한 명 희
(원불교 중앙총부)

I. 서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남녀가 서로 다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 다르게 행동하도록 부모나 가족들에 의해서 요구되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아들은 일반적으로 사회나 부모들에 의해서 특정한 행동, 즉 여성다운 행동을 하도록 가르침 받아 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매우 어린 나이의 여아 시절부터 강조되어진다. 부모들의 남아 선호 기대감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심리적으로 나타나고 남존여비 사상이 깊은 사회, 특히 유교 가풍의 사회에서 여아가 태어날 때 그 아이는 환영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남아 선호 사회에 뿌리깊게 존재해 있는 사람들의 사고라 볼 수 있다.

소태산 대종사는 조선시대 한국 역사에 나타나는 여성의 불리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 조선시대 신유교학파는 여성의 사회생활과 가정 생활을 존중치 않았는데 그 점에 관해서 소태산 대종사는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언급했다.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녀에게 의지하였으며, 또는 권리가 동일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이 교육도 받지 못하였으며, 또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자기의 심신이지만 일동 일정에 구속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음이니라(원불교교전, 1991: 40).

소태산 대종사는 남녀간에 존재하는 차별대우의 문제점의 이해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소태산은 남녀평등권의 실시 방법을 그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개혁론인 사요실천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남녀간에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사회인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남성의 권리와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사회 건설의 이론을 자력 양성의 조목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여자도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요.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심하여 생활에 자유를 얻을 것이며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할 것이요(원불교교전, 1991: 41).

또한 자력 자로서 타력 자에게 권장할 조목에서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하여 줄 때에는, 장자나 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그 재산을 받아 유지하지 못할 사람 외에는 다 같이 분급하여 줄 것이요.
기타 모든 일을 경우와 법에 따라 처리하되 과거와 같이 남녀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일에 따라 대우하여 줄 것이니라(원불교교전, 1991: 40).

소태산 대종사는 여성 교육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져야 하며 남성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여 과거의 여성과는 달리 여성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녀간의 평등함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소태산은 그의 제자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개인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소태산은 부모들이 그들의 유산을 분급하여 줄 때 남녀의 성에 관계없이 또는 장자나 차자에 상관없이 자녀들간에 똑같이 재산을 분급하여 줄 것을 명확히 밝혀 주고 있다. 유교가 한국에

전파된 것은 고려 말기였으나 널리 보급되어 실천되었던 때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였는데, 유교의 사상에 의하면 여자는 유산을 분급받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신라 시대를 이외의 한국 여성들은 자기 삶과 자기 자녀들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경제적으로도 힘을 갖지 못했던 여성들은 자연히 일등 국민이 아닌 이등 국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태산 대종사는 한국 여성들이 처하고 있는 당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여성 제자들뿐만 아니라 남성 제자들에게도 잘못된 사고들을 바꾸도록 교육시키고자 했다.

소태산은 원불교 여성들을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여성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화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는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소태산은 깨달음에 의해 본성과 능력의 가능성은 똑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여성이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본다. 소태산은 그의 여성 제자들로 하여금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들 남편들과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Ⅱ. 소태산의 사상에 나타난 남녀 평등 사상

1. 기혼 여성 교역자와 미혼 여성 교역자에 대한 평등권

소태산의 남녀 평등 철학은 소태산 자신에 의해 설립된 원불교 교단에서 먼저 시행되었다. 전통 불교에서는 불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들은 반드시 사회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떠나야만 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불법을 진실로 수행하고자 하면 그들은 세상을 떠나고 금욕 생활 할 것을 요구받았다. 만약 그들이 금욕 생활을 할 수 없거나 결혼을 원한다면 그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출가수행자가 될 수는 없으며 대신 그들은 재가 신자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또한 서약을 어겨야만 할 때, 그들은 심리적으로 자신들을 실패자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태산 대종사는 불법 수행이 결혼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

인의 마음에 따른 문제임을 강조한다. 그는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상황과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토록 한다. 어떤 사람이 금욕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였을 경우 그 사람은 자의적으로 금욕 수행하는 출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원불교 출가자들에게는 종교적인 역할 때문에 금욕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많은 남자 출가자들이 결혼을 했고 그들의 자녀들 역시 부모의 뒤를 이어 출가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태산 대종사는 그의 제자들을 결혼 유무에 따라 차별을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의 가르침을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도록 했으며 특별한 생활에 의한 특별한 수행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소태산과 그의 제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로서 그가 어떻게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종사 마령 교당에 가시니 오송암이 와서 뵈옵고 말하되 “저의 여식 중순 중태가 입교한 후로 출가를 거절하는 것이 제 뜻에는 맞지 아니하오나, 그들의 뜻을 굽히지 못하여 그대로 두오니, 그 장래 전정을 책임져 주소서” 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과거의 불교와 달라서 결혼 생활을 법으로 금하지는 아니하나, 그와 같이 특별한 서원 아래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공부 사업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어찌 범연할 수야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장래는 부모나 스승에게 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더 달려 있나니, 최후 책임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대나 나는 정성을 다하여 지도만 하여보자”(원불교대종경: 실시품 27장)

이 대화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출가자들의 결혼에 관한 그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가 여기에서 분명히 밝힌바와 같이 원불교는 전통 불교 제도와는 다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체로 그의 순결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출가승으로서 불법을 수행했다면 소태산은 그의 결심을 진정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결혼을 결심했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출가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세계사를 통하여 볼 때 역사의 대부분을 가부장제 사회가 지배하여 왔다. 그러므로 비록 깨달음을 이룬 성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처한 시대의 사회 상황에 따라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경우가 있었다.

대각을 경험한 소태산은 여성에게 불리한 어떠한 편견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구상하는 이상세계에는 어떠한 형태의 불평등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원불교 수

행자라면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노인을 만나든 젊은이를 만나든, 부자를 만나든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인간을 만나든 동물을 다루든지 상관없이 오직 대자대비심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인간 상호간에, 그리고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 나아가 나무들에게까지도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2. 출가자와 재가 신도들간의 평등권

소태산은 그의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출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가르침인 불법을 진심으로만 수행한다면 출가자든 재가자든 전혀 차등이 없다고 했다. 원불교 초기 역사에 의하면 소태산은 출가자나 재가자에 상관없이 그의 제자 모두를 함께 정기 훈련을 받게 했다.

그의 초기 제자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였으며 소태산은 결혼 유무 때문에 그들을 다르게 대우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여성 제자들로 하여금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한계성을 넘어서도록 권장하였으며, 그들이 깨달은 진리에 의해 새로운 삶을 이뤄가도록 여성들의 의식을 일깨우며 권장하였다. 소태산은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시대 그곳에 낙원을 건설하도록 가르쳤다.

다음 대화는 소태산의 한마음 사상과 불공에 관한 그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심과 정성스런 마음에 대한 깨달음은 바로 모든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시사했다.

여자 교도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도 전무 출신들과 같이 깨끗이 재계하옵고 기도를 올리고 싶사오니 가정에 매이어 제 자유가 없는 몸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재계하는 것은 출가 재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재계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러하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으리라”(원불교 대종경: 변의품 14장).

출가 재가라는 종교적 신분에 상관없는 소태산 대종사의 평등사상은 다음의 인

용문에서도 증명이 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도가나 정부나 민간에서 각각 차별 세우는 법을 주로 하여 여러 사람을 다스려 왔지마는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처지에서나 그 쓰는 법이 편벽 되면 일반 대중을 고루 화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 회상에서는 재가 출가와 남녀 노소를 물론하고 대각한 도인이 나면 나 아래위로 받들 것이요……”(원불교 대종경: 부촉품 17장).

소태산의 가르침이나 원불교 교단에서는 남녀간, 출가 재가간, 또는 출가자의 결혼 유무 등에 상관된 어떠한 차별법도 용납하지 않았다. 만약 어떠한 차별 법이 있다면 그것은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소태산에 의하면 사회적 위치나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열려있고 동시에 누구에 의해서나 수행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가 제시하는 유일한 조건은 누구든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입장이 되려면 동등한 능력을 갖추는 때까지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개인별간의 차이란 단지 개인간 능력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사람과 평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개인이 갖추고 있는 불성(Thatagatagarba)¹⁾을 언제 어느 때라도 발현시키는 것이다.

3. 평등을 위한 여성 교육의 중요성과 실천

소태산은 제자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우고자 노력했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였고 그러기 때문에 원불교 창립 당시에 제자들을 위한 정기 훈련을 시작했었다. 교육제도의 중요성에 관한 그의 철학에 따르면 개인의 능력 개발은

1) Thatagatagarba라는 말은 역사적 인물인 석가모니 부처에게 주어지는 칭호중의 하나인데 후에 대승불교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garba라는 말은 모체, 보석, 또는 태아를 의미하는 말로서 Thatagatagarba의 저장소 또는 궁극적인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Thatagatagarba는 여래, 절대, 또는 영원한 부타(법신불) 인간에 있어서 여래,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불성, 본질적인 깨달음의 요소 그리고 실현되도록 학습고대하는 구원의 가능성 등의 부분인 불성이다.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높이고 그래서 타인들과 동등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게 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평등한 권리는 외부에서 주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궁극적 자유는 타인들과의 동등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차별 법을 없애야 한다는 소태산의 철학과 그에 바탕한 동등권을 실현시키는 일은 일원상 진리(법신불 혹은 불성)에 대한 그의 대각에서 나온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동등권을 얻고 그 동등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소태산은 강조한다. 그는 이 사바세계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회 개혁의 방안인 사요실천의 제안에서 한국 여성의 사회적 신분에 관한 가르침을 제시했다. 사요실천은 바로 1) 자력 양성, 2) 지자본위, 3) 타자녀 교육, 4) 공도자 숭배 등(원불교교서: 39-46) 이다.

전 원불교 종법사 김대거는 개인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스스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소태산 대중사의 사상을 자력 양성의 필요성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자력을 양성하여야 남녀 차별과 인권 차별이 없어지고 인권 평등이 될 것이다.

2) 자력은 인격이요, 권리요, 행복이요, 건설이요, 건강이다.

3) 전 인류가 정신의 자주력과 육신의 자활력과 경제의 자립력을 갖춘 후라야 완전무결한 평등 세계가 될 것이다(김대거: 46).

원불교 여성을 위한 교육은 원불교 창립 당시부터 강조되고 실시되어져 온다. 남녀간의 평등권을 얻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힘은 개개인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난다. 교육의 기회는 개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므로 소태산은 원불교 창립 당시부터 여성 출가자뿐만이 아니고 여성 제가 교도들에게도 평등한 교육 기회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태산은 또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자신의 상황을 조절할 만한 학식이 없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도록 하였다. 과

거 한국 여성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닫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비록 본질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상황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동등권을 유지할 수가 없다.

소태산은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과 지자본위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보다 더 알고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워야만 한다고 했다. 상대가 연장자든 연하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자기보다 지식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그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여성의 사회적 신분을 남자와 비교했다.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성들은 자기보다 강자인 남성에게 무조건 화를 내거나 또는 그 화 때문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능력을 준비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여성들은 그들의 능력이 남성과 동등해질 때까지 자신들의 능력 배양에 무한히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을 약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성들은 그 동안의 긴 잠에서 깨어나서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자신들의 존엄성을 되찾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권위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김지정, 1981: 56). 그러므로 단지 강자(거의 모든 강자들이 남자였음)를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여성은 반드시 지혜와 지식 앞선 사람들로 부터 배워야만 한다. 少太山の 지자본위 철학에 의해 원불교 종법사였던 金大擧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과거 불합리한 차별 제도를 버리고 지우차별만 세워 놓아야 각자가 배우기에 힘써서 사람마다 지자가 되는 동시에 온 인류의 지식은 자연 평등하게 된다(김대거: 46).

그는 “지자본위의 필요성”에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계속한다.

지자를 본위로 하여야 반상, 적서, 노소, 남녀와 인류의 차별이 없어지고 자연 지식 평등이 되어질 것이다. 지식은 눈이요, 수족이요, 힘이요, 영생의 등불이다

(김대거: 48).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약자의 입장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 교육에 힘써야 한다. 그 이유는 자아 교육을 통한 능력 배양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방과 평등하게 하는 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태산은 여성 제자들에게 자신(여성)의 충분한 지식이나 힘도 갖추어 없 이 강자(남자)와 대항하여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세계 역사를 통해서 여성들이 오랜 기간동안 남성에게 비해 약자의 입장이었다. 때문에 남성을 적으로 생각하고 대항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등하거나 월등하도록 무한히 자아 교육에 힘써야 한다. 여성들은 또한 전통 사회에서 무엇이 남성을 강자로 만들었으며 무엇이 여성을 약자로 만들었는가에 그 원인을 알아야 한다. 만약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그들은 보다 나은 위치에 이를 수 있도록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소태산의 여성 훈련은 개인의 자주력 계발부터 시작된다. 남성과 여성간의 교육 기회의 불균등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차별대우도 소태산의 안목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교육은 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한계성을 벗어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4. 소태산의 남녀평등권이 실현된 원불교 여성교역자상

종교 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 성직자에 관한 논제는 수세기를 통해 논란되어져 왔다. 예를 들면 영국 성공회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도록 의견을 모았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사상은 즉시 바티칸에 의해서 공공연히 비난받게 되었다. 영국 성공회가 그러한 입장을 말함으로써 카톨릭과 영국 성공회는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소태산은 원불교 창립 초기부터 여성들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출가 교역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었고 실제로 그렇도록 교육을 시켰다. 그의 생애에 소태산은 여성들에게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었다. 물론 소태산 당시의 여성들은 그 당시엔 남성들에게만 가능했던 종교의 지도자가

되는 것과 자신들이 종교 생활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태산은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여성들도 정신적인 지도자 즉 종교 지도자가 될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제자들이 그 점을 깨닫도록 각성시킨다.

Honer가 저서 원시종교 시대의 여성(Women Under Primitive Buddhism)에서 언급했던 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하파자파티의 출가를 허락하실 때 여승에게만 요구되어지는 8가지 부가계문을 주었고 이 8가지 부가 계문은 여승과 남승 사이의 차별화를 제도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Honor, I. B.: 119-120). 8가지 계율²⁾은 불교 여승(비구니)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통 불교를 따르는 한은 항상 남자 출가승(비구)의 지휘하에 놓이게 한다.

부처님의 대각은 여성에게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성의 출가를 인정하는데 망설였다. 그는 여성의 출가를 인정할 때 그가 남성과는 달리 완전한 주권을 주지는 않았다. 부처님의 열반 후 비구들은 소승 불교의 사원 모두를 장악했고 모든 여성들의 출가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대승불교에는 많은 여승들이 있고 여승을 위한 사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대승불교 비구니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고 있었다.

원불교 여성들은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에 의해 출가 교역자가 되도록 격려 받았다. 소태산의 여성에 관한 최초의 관심은 여성들의 새로운 의식 개혁이었다. 그는 여성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깊이 잠든 의식을 깨어나 그들 자신의 불성을 되찾고 능력을 되찾도록 강조했다. 소태산 대종사는 그의 여성 제자들을 위한 초창기 강연에서 그 당시 여성들에 대한 그의 신념을 확인시켜 주었다. 원기 14년 4월 소태산은 서울 창신동에서 개최된 일요 법회에서 여성 제자들에게 강의하기를;

여러 여성들은 부디 눈을 뜨고 가슴을 열어 과거와 같은 좁은 우물 안 밑바닥 같은 전통적인 여성의 삶을 벗어나라(김지장: 57).

-
- 2) (1) 비구니는 비록 나이가 100살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록 방금 출가한 비구 앞에서라도 대래로 절할 것이며 그의 앞에서 일어나 그의 발아래 앉을 것이며 모든 예의와 의부를 다 할 것이며 …… (8) 비구니는 비구를 정식으로 혼계할 수가 없으나 반대로 비구에 의한 비구니의 공식적인 혼계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이공주, 이동진화, 조전권, 민자연화, 이성각, 그리고 다른 여성 제자들이 그 모임에 참석했었다. 그의 파격적인 강의는 그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했다. 그날 그 모임에 참석했던 여성들은 그들 자신 내부에 오랫동안 뿌리 박혀 왔던 무능력하고 열등하며 수동적인 여성으로서의 여성 자신에 관한 편견을 깨닫게 된다. 그의 강의에서 전통적인 한국 여성의 생활은 우물 속 좁은 밑바닥으로 상징되어 비유된다.

우물은 보통 좁고 깊다. 우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은 오히려 더 순수하고 깨끗한 물로 여겨진다. 소태산은 전통적인 여성의 세계를 우물에 비유했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 차별 제도에 자신을 쉽게 포기하고 불공정한 사회의 기대감에 적응하기가 쉽다고 했다. 소태산은 여성들이 우물 속 밑바닥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고 가르친다. 즉 여성들은 모든 한계성을 극복하고 그들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들에게 본래 구족해있는 힘을 갖추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소태산은 조선시대의 남녀차별법이 여성들을 무능력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바로 여성들이 교육받을 아무런 기회도 갖지 못한 때문이었다. 한국 여성들은 그들의 권위가 불공평하게 침해당했음을 의식하지 못했으며 그들이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소태산은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태산에 의하면 모든 사회구조의 모순은 사람들의 무지에 기인된다고 본다. 사람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실이 구시대의 모순된 사회구조와 비합리한 차별 제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의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태산은 여성 제자들을 위한 교육 기회들을 많이 부여했다. 그는 또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원불교 총부가 있는 익산시와 원불교 성지인 영산에 있는 선원에 야간 학교를 설립하도록 지도했다. 그래서 사회계층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였다(하상의, 1991: 43).

개인의 의식 변화가 선행될 때 사회 개혁도 가능하게 된다. 소태산은 훈련 과정

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개인의 의식 혁명을 낳고자 했다. 인간 의식의 혁명을 꾀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함이었다.

소태산 대종사의 남녀평등 사상이 실현된 원불교 여성 교역자상은 원불교 여성 수위단원들을 들 수 있다. 수위단은 원불교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열아홉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불교 종법사는 이의 단장에 해당하고 2명의 중앙이 있는데 이들은 남성 1인과 여성 1인으로 구성된다. 2명의 중앙 단원을 포함하여 남자 9명 여자 9명으로 합계 18명의 남녀 수위단원이 있다.

1919년 소태산은 최초의 수위단으로 8명의 남성 제자들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었기 때문이다. 소태산은 그 수위단의 단장이 되었다. 최초의 수위단은 단지 남성들로만 구성이 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소태산은 아직 수위단이 될 여성 제자들을 만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여성수위단이 결성된 것은 1930년(원기 15년) 이었다. 소태산은 자신의 남성 제자와 여성 제자들에게 수위단에 피선될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했다. 여성 제자들도 수위단에 피선되어 원불교 교단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발언과 투표의 권리가 남성과 마찬가지로 주어졌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사항 역시 여성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부여되어졌다. 소태산은 출가와 재가에 관계없이 남녀 제자들에게 같은 내용과 단계의 계율을 주었다(원불교교서 계문: 81-84).

그는 남녀 제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기대했다. 그러기 때문에 수위단으로 피선된 여성 대표들을 생각할 때 원불교는 남녀평등권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종교 제단임을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원불교 여성들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 사회 여성들의 심층 의식 세계는 아직도 유교 사상이 보편화되었던 조선시대 이상적 여성상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잔재해 있다. 현재 원불교 여성 교역자들의 독신생

활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때때로 전통적인 사고는 여전히 보편적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남녀에게 차별적인 제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조선시대 유교관에 정신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종교 생활에 전념키 위해 결혼을 원치 않으며, 그들이 결혼하고도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원불교 여성들은 출가 교역자가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해 요인도 없다. 그들은 종교의식 주관을 포함한 모든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에서 남성 교역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역사적인 여성 혁명은 원불교 창립자인 소태산 대종사의 남녀평등 사상에서 발상 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전통 사회의 한국 여성들은 결혼이란 속박에 묶여져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는 여성들에게 결혼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남성보다 열등한 위치에 처하지 않게 할 자유, 즉 결혼을 거부할 자유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여성들은 결혼 대신 독신으로 살 것을 선택하므로써 결혼 제도가 가져올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태산은 여성의 독신생활이 반드시 출가 교역자가 되기 위한 전제적 요구 사항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원불교 역사는 대종사님 당대의 깨달음을 얻은 여성들 대부분 결혼한 여성들이었음을 증명한다. 1931년 최초의 여성 수위단 뿐만 아니라 1943년 뒤따른 여성 수위단들도 역시 모두 결혼한 여성들이었다(원불교 교사, 1108).

현재 원불교 여성 교역자들은 원로 여성 교역자들의 활동과 능력에 영향을 받았다. 소태산의 철학과 평등사상 때문에 남녀평등권은 현재까지 꾸준히 증진되어 왔다. 소태산 대종사에 의해 허락된 최초의 정녀 교역자는 기혼 여성 제자들의 출가 허락보다도 훨씬 늦게 출가가 이루어졌다. 최초의 정녀 교역자였던 조전권의 출가를 계기로 원불교는 현재에 이르도록 까지 수많은 정녀 교역자들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 상황이나 세계의 사회 상황이 변화되어져 왔다. 여성들도 결혼의 자유와 더불어 사회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갖기 위해서 독신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 원불교 여성 교역자들은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의 철학을

다시 한번 현실화시켜야만 한다. 타 종단과 마찬가지로 원불교도 지난 81년간의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화되어 왔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에 하나의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이 되었던 것이 81년 후인 지금에 이르러서는 적절한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성이 결혼 안 할 수 있는 자유는 그들 한국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삶에 새로운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 되고, 신-유교적인 사회와 가족주의 사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안이었다. 그러나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했던 바로 그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결혼 유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일부 원불교 남녀 교역자들의 의견은 여성 교역자들도 교역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신생활을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대거. 정전대의.

김지정(1981). 개벽의 일꾼: 원불교 여성 70년사. 이리: 원불교여자정화단.

원불교 교사. 원불교 전서.

원불교교전(1991). 이리: 원불교출판사.

원불교대종경.

하상의(1991). 의식개조와 사회개조. 원광. 1, 3월.

Cullavagga, X., 1, 4, cited by I. B. Honor, *Women Under Primitive Buddhism*.

A Comment on "The Function of Social Education for Women in Won Buddhism" :

Women's Equality to Men Adopted by Sot'aesan

Myung-Hee Hahn

(Int'l.s Affairs Headquarters of Won Buddhism)

I. Introduction

In mundane reality, women's characters are often different from men's. The reasons for this different appearance could be explained as follows: Women were expected to behave differently from men and were trained differently from childhood. They had been taught to act in certain ways by their parents and society in general. The models of an ideal woman in patriarchal society had been emphasized from a very early age for girls. Even their identities could be traced back to the psychological expectations of their parents' strong desire and wish to have a boy. Girls were not welcomed when they were born in male-dominated society, especially in Confucian society. The biggest obstacle for women to be themselves was the view point existing in people's minds in the male-dominated society.

Sot'aesan understood the plight of women in the Korean history of the Chosun era, in which Neo-Confucianism was engulfing social and family life, and he described it succinctly. He proved that he understood the problem well enough and he

substantiated this issue in his teachings;

Women depended on parents when young, on husbands after marriage, and on sons when old. Unlike men they were uneducated, owing to unequal rights between men and women; they did not have rights in their society, nor had they the right to inherit property, and even their minds and bodies were so restricted that they could not behave on their own accord(Wonbulgyo gyoso, 1991: 40).

Sot'aesan understood not only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between men and women, but he also had the remedy to solve this problem. His Four Essentials for Social Reform(K. Sayo) contains the methods for the establishment of equality for women. His vision was for a new society based on justice and equality for all men and women. He suggested a theory for reforming the community in order to establish women's rights on an equal basis to men's rights.

The items of the cultivation of Independence are:

Women, like men, should be educated sufficiently so that they can work in society.

Men and Women should work diligently at their occupations so that they may live comfortably. They must be equal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obligations to their nation(Wonbulgyo gyoso, 1991: 41).

The items recommended by those living Independently to those who would depend on others:

Parents should divide their inheritance equally and indiscriminately among their children, the second son and the daughters should receive an equal share, as well as the first son.

All other affairs should be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cases involved and the law.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between men and women, as in the past, but instead they should be treated equally in accordance with what they do(Wonbulgyo gyoso, 1991: 40).

Sot'aesan demonstrated his philosophy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women.

He emphasized that women should have a proper vocation so that they could live comfortably and independently from men, unlike women in the past. Although women might get an education and develop understanding about their condition, if they have no economic power over their own lives, then there will not be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Therefore, Sot'aesan taught his disciples to strive for economic independence.

According to his philosophy of the importance of economic independence in one's life, he elucidated the concept that parents should divide their inheritance evenly among their children regardless of gender, or position in the family. Since the time that Confucianism was introduced to Korea in the latter part of the Koryo dynasty and widely practiced throughout the Chosun era, daughters were not allowed to inherit property.

Korean women were not allowed to have any power or control over their own life or their children's lives except during the Silla era. Economic weakness made Korean women second class citizens. However, Sot'aesan understood the real difficulties which Korean women faced. He tried to educate not only his female disciples but also his male disciples so that they could change their misconceptions.

Women were asked to perform to the best of their abilities to obtain equal rights compared to men. Sot'aesan wanted Korean women to achieve full competence to control their own lives since he viewed their original nature as the same original nature as men's. Yet, if women are not capable, then are not ready to get equal rights. Therefore, Sot'aesan educated his women disciples to take responsibilities equal to their husbands' in their homes as well as in society.

II. Women's Equality to Men Adopted by Sot'aesan

1. No Discrimination between Married Clergy and Unmarried Clergy

His philosophy of nondiscriminating was put into practice by his own institutions. In traditional Indian Buddhism, men and women, who want to practice Buddhism sincerely, must renounce all their duties or responsibilities toward society or their family. In other words, when they want to practice Buddhism, they are asked to renounce this world and to maintain celibacy. If they cannot be celibate and choose to remain in their marriage, then he or she is not allowed to be Ordained as Buddhist Clergy. Instead, they must return to their status as lay people. At the same time, when they have to leave their vows, they see themselves as failures psychologically.

However, Sot'aesan emphasized that Buddhist practice depends upon one's mentality rather than one's marital status. He guided his disciples to consider their own circumstances and needs. When one has the psychological makeup to maintain celibacy, then one could voluntarily be a celibate ordained clergy. It is not forcefully required for Won Buddhist clergy to keep celibate for their religious function. As a matter of fact, most male clergy are married and their children usually follow in their father's religious footsteps.

Sot'aesan did not discriminate against a disciple because of his or her marital status. Rather, he encouraged his disciples to practice his teaching in their normal daily lives rather than to adopt an extreme way of life. The following conversation between Sot'aesan and his disciple will show his method of guiding people.

When the Great Master was at A Maryung branch temple, Oh Songahm came to see him and said, "My daughters ChongSoon and ChongTae, since they have become your disciples, refuse to get married. Though I am against the idea of their remaining unmarried, they seem so determined that there is not much I can do about it. Will you please look after their future?" The Great Master replied, "My law is different from that of Buddhism in the past, and therefore marriage is not prohibited. However, if they are so determined to dedicate their innocent bodies and minds to moral practice and religious works, how could I overlook that fact? Yet, their futures depend more upon their own minds than on those of their parents or teachers."(Wonpulgyo Daechongkyong: The Great Master's Examples 27)

In this conversation Sot'aesan clearly expressed his philosophy about the marriage of clergy. As he mentioned here, Won Buddhism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Indian Buddhism. If one has a motivation to maintain one's celibacy and practice Buddhist dharma with one's pure body and mind, then he would support that decision wholeheartedly. However, if one decided not to be celibate, this is not prohibited in Won Buddhism. Throughout world history patriarchal society had dominated most religions. Therefore, even enlightened spiritual guides had som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ot'aesan's awakening means the practice of nondiscriminating against women. He said that there should not be any discrimination in his paradise. Whether one encounters a girl or boy, man or woman, elder or youth, rich or poor, human being or animal, one should practice only benevolence or compassion toward them. He emphasized the fact that each person as a human being in society should realize how much graceful love one gets from another, not only from another human being but also from animals, plants, and trees.

2. No Discrimination between Ordained Disciples and Lay Disciples

Sot'aesan didn't emphasize that all his disciples should be ordained. He maintain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ordained disciples and lay disciples as long as they practice Buddhist Dharma sincerely. At the very beginning of Won Buddhist history, Sot'aesan assembled his disciples together for his fixed term training course regardless whether they were ordained or not.

Most of his first women disciples were married and he did not treat them differently. He encouraged his women disciples to go beyond their social and historical boundaries, and to try to heighten their awareness and build new lives according to their enlightenment of the truth. Sot'aesan also stated that everyone should be able to practice Buddhist teachings in their daily life so that all human beings in this world

could build a paradise in this present time and place.

The following conversation shows Sot'aesan's philosophy of 'One mind' or One Place of Buddha land. Enlightenment according to mindfulness and sincerity of mind is the essential principle.

One of the women lay disciples asked the Great Master, "Like your ordained disciples(in this case, she meant especially the women ordained disciples), I wish I also could perform purification of my mind and body before praying, but I am too busy with household affairs and can't act on my good intentions. Please, give me some advice." The Great Master said,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purification of one's mind between the lay disciples and the ordained disciples(K. Chonmuch'ulsin). Just be mindful of purifying of your own mind and pray with all your heart. Then your prayers will be answered to the degree of your sincerity regardless of your being a lay person or an ordained person."(Wonpulgyo Daechongkyong: Answers to Questions 14)

Sot'aesan's philosophy of nondiscriminating regardless of religious status could be demonstrated from the following quotation:

The Great Master said, "In past times, religious Orders, governments, and individuals governed people under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In the coming world, however, i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exist, there will be no harmony among the people. Therefore, in our Orders, we will not discriminate between laity and monks, men and women, or between elders and youth, in paying our respects to those who attain Enlightenment and who deserve to be treated as holders of the Sacred Rank of the Great Enlightened Tathagata(Wonpulgyo Daechongkyong: Words of Commission 17).

Therefore, in teaching and in institutions, there should not be any discrimination between men and women, between clergy and lay people, or between married clergy and unmarried clergy. If there is any discrimination, then this is not following Sot'aesan's teachings. According to Sot'aesan, all opportunities are open to and practiced by people of every social status and gender. The only necessary condition which he suggests is that one has to develop one's status until it is equal to others. In other words, one should realize that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tiation, but there is

differentiation between individuals because of individuals' capabilities. Therefore, to be equal to others in every religious sense, all that one has to do is to cultivate one's own Thatagathagarba¹⁾ Buddha everywhere and in every moment.

3. The Actualization of Education for Womens Equality to Men

Sot'aesan had strived to build up educational systems for his disciples.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al system so completely that he himself started the fixed term training programs at the beginning phase of building his community. According to his philosophy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cultivation of one's qualifications would be the major method by which one could raise one's status up to be equal to others. This equality may not necessarily be given from outside of oneself. The final symmetry and the final freedom will come to oneself only through one's own striving and seeking parity with others.

Sot'aesan's theories and his actualization of the equality or non-discrimination among all kinds of human conditions came from his great enlightenment of the truth of Irwonsang; Dharmakaya or Thatagatagarba.

In order for women to be equal to men, Sot'aesa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ir efficacy to attain or maintain their equal rights. He gave this teaching concerning the social status of women in Korea in his four essentials for social reform for the purpose of changing this world into boundless paradise. The four essentials are 1) the

1) The term Tathagata was originally one of the epithets given to the historical Buddha, Sakyamuni, but it later came to be used in Mahayana Buddhism in a much broader sense. And the word Garbha, meaning a matrix, germ, or embryo, symbolizes the receptacle of Tathagata or the Absolute. Therefore, Tathagata-garbha denotes Suchness, the absolute, or the Eternal Buddha(Dharmakaya). It is Suchness in man, the Buddha-nature which is a part of the intrinsic nature of all men, the element of original enlightenment, the potentiality for salvation that waits to be actualized. quoted by Yoshito S. Hakeda, His translation with commentary, *The Awakening of Faith*,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7), p.13.

Cultivation of Independence, 2) the Wise One as the Standard, 3) the Education of Children of Others, 4) Veneration for Those Dedicated to the Public Well-being(Wonbulgyo gyoso: 39-46).

The former Won Buddhist Prime Minister, Kim Taego, clearly interpreted Sot'aesan's teaching of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individuals in the morality of equality and self-reliance. He expressed this with the title of Necessity of Cultivation of One's Own-Ability:

1) Equal human rights, namely, banishment of discriminations based on sex and race, will be realized only if everyone has attained the ability of self-reliance.

2) The ability of self-reliance is necessary for people's dignity, rights, happiness, constructiveness, and health.

3) Only after everyone in the world attains spiritual, physical and economic self-reliability, will the world become a perfect world of equality(Ven. Kim Taegeo: 46).

Education for women in Won Buddhism has been emphasized since the very beginning of Won Buddhism. In the achievement of equal rights for men and women, the actual equality comes from the equal capabilities of each individ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would improve each individual's competence. From the beginning evolutionary period of his teaching, Sot'aesan professed the same theory of opportunity for education, not only to Won Buddhist clergy-women but also to Won Buddhist laywomen.

Sot'aesan also gave the opportunity to the wise and knowledgeable person to teach and to lead those who are not erudite enough to handle their own situation. Since Korean women did not have many opportunities to get a systematic education in the past, women had to learn first to recognize the direction in which they wanted to proceed, to analyze the correct or incorrect method, and to understand how to get what they want. If they do not receive that knowledge, even though they were born to be equal to men, they cannot assert their equality because they simply do not have the capacity to handle their situation.

Concerning the principles by which the inferior and superior can progress, and the principles of the wise one as the standard, Sot'aesan said that one should try to learn for one's own benefit from the person who knows more. Whether older or younger, whether man or woman, one should learn from a more knowledgeable person.

Sot'aesan compared women's social status to men's. As a person in a weak position, a woman should not get angry at a stronger person, nor fight against that person out of anger. To have equal rights to men, women must develop similar strength. To gain the same potency, women must prepare their proficiency. Therefore, women should try to cultivate their own ability until it is equal to men's.

Women who see themselves as weak should not continue with that perception. They must wake up from their long sleep. Using their liberated consciousness, women can create authority over their own lives through their efforts to recover their dignity(Kim, Chichong, 1981: 56). Therefore, instead of just fighting against superiors(most of which were men), women must learn from the wise and informed. According to this philosophy, the present prime minister of Won Buddhism, Kim Taego interprets Sotaesan's teaching of "the Wise and Knowledgeable One first," as follows:

Let us change those who are not willing to learn to those who learn well, because Human knowledge will be equalized only if everyone becomes knowledgeable as a result of the effort to learn by abolishing all unreasonable discriminations of the past and by observing onl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wise and foolish(Ven. Kim Taekeo: 46).

Kim Taego, explained further the results possible when observing "The Necessity of The Wise One as Standard":

Discriminations of high and low, of a legitimate and illegitimate child, of old and young, of man and woman, and of races will vanish; and equality of knowledge will be realized naturally only if the standard of letting the wise and knowledgeable one teach and lead is set up. Knowledge is the eye, hands and feet, power and light for eternal life(Ven. Kim Taekeo: 48).

When one is in an inferior position to another, one should try to educate oneself

to increase one's own wisdom and faculties, because only one's own competence and erudition can bring real power to individuals. Sot'aesan taught his women disciples not to fight against superior forces without trying to have sufficient knowledge or enough power.

Therefore, since women's position was inferior to men's for a long period of Korean history as well as throughout the entire world, women should try to educate themselves to be equal or superior to men instead of fighting against men as their enemies. Women should learn what made men superior and what made women inferior in traditional society. If women realize what their problems are, then they can empower themselves to be in a better position.

Sot'aesan's training for women begins from the cultivation of individual independence. Any kind of discrimination including educational in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is not acceptable from his point of view. Education is one way for an individual to overcome one's own limitations and to actualize one's own faculties.

4. Women Clergy in Won Buddhism: Encouragement from Sotaesan

The controversy over the role of women and the ordination of women in religious life has lasted for many centuries. For example, when the Anglican/ Episcopal Church of England voted to allow women's ordination, this positive vote was immediately denounced by the Vatican -- a fact they said would make it more difficult for the Catholic and Anglican Churches to work together.

However, from the beginning of Won Buddhist curriculum, Sot'aesan educated and empowered women to have self-confidence to be ministers equal in power to men. In his lifetime, he enabled women's equal rights to be spiritual leaders. Of course, the women who were Sot'aesan's contemporaries had strong self-doubts about committing themselves to the religious life, and being spiritual leaders like men did at the time. Nevertheless, Sot'aesan enlightened them and society that women are fully deserving of

having the dream of being spiritual leaders, whether or not they are married.

As Honer mentioned in her book, *Women Under Primitive Buddhism*, when Buddha accepted Mahapajapati's ordination, he added eight additional rules for Buddhist nuns, and this had the effect of institutionalizing the inequalities between monks and nuns(Honer, I. B.: 119-120). The eight rules²⁾ held Buddhist nuns under monks domination for as long as they followed the traditional Buddhist institutions and leaders.

Buddha's awakening acknowledged the possibilities for women to be Buddhas. Nevertheless, he was reluctant to accept women for ordination. He did not give the same full dominion to women as he did to men when he decided to accept them. After Buddha's parinirvana Buddhist monks dominated entire sangas in the Theravadan traditions and few Buddhist nuns were accepted to be ordained at all. In the Mahayana tradition, there are many Buddhist nuns' groups and nunneries. They have empowered themselves through their own efforts.

In Won Buddhism, women disciples were encouraged by the founder, Sot'aesan himself. Sot'aesan's first focus was their new consciousness. He tried to encourage them to awaken from their mental status of deep sleep to their own Buddha-nature and capabilities. His lectures in relation to his women disciples at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would demonstrate his convictions about women's contemporary situation. In April of Wonki 14, Sot'aesan gave a lecture to his women disciples at the Ch'angsindong Sunday meeting.:

You, Women, should open your eyes and hearts, and come out of the traditional women's life, which is like the bottom space inside of a narrow well(Kim, Chichong: 57).

Many women disciples attended that meeting. His surprising lecture enlightened them. The women disciples, who attended that Sunday meeting and listened his lecture,

2) (1) An alms-woman, even if of a hundred years standing, shall make salutation to, shall rise up in the presence of, shall bow down before, and shall perform all proper duties towards an alms-man, if only just initiated (8) From henceforth official admonition by almswomen of almsman is forbidden, whereas the official admonition of alms women by almsman is not forbidden.

were awakened from their deep-rooted prejudice against themselves as incapable, inferior, and submissive as women. In his lecture, the traditional Korean women's life was the metaphor of the bottom space inside of a narrow well.

A well is usually narrow and deep. If a well was dug very deeply then it is considered to have pure and clean water inside. He compared women's lives to the figure of a well and mentioned that it is easy for women to give up and adjust themselves to the discrimination of society and its unjust expectations. Sot'aesan taught that women had to find an egress to the bottom life inside of the well. Namely, they should open all the boundaries and try to get back their original power through their own efforts.

Sot'aesan thought that the reason for the discriminations of medieval times was the ineffectual position Korean women held. This was because they did not have any opportunity to get an education. Korean women were not conscious that their authority was invaded unjustly, inasmuch as they had no conception that they should have an education. To correct these unjust social phenomena, Sot'aesan emphasized that women had to have the same educational opportunities as men.

According to Sot'aesan's axiology, the causes of all contradictory social structure are based on people's ignorance. The unbalanced opportunity of education was the cause of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nd the contradictory social structure of old society. As a result, when everyone in society has sufficient knowledge, then an equal society for everybody is a possibility.

Sot'aesan granted many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his women disciples. He guided his disciples to establish evening schools at the headquarters of Won Buddhism in Iksan city, and at Yongsansonwon in Yongsan province, so that everyone from different social statuses could receive an opportunity to further their education(Ha Sangui, 1991: 43).

Any really social reformation needs the reformation of each individual's consciousness. Through his training course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he tried to create a revolution of human consciousness. His reason for the reformation of human

consciousness was to induce everyone have a new viewpoint and to have a new life.

The supreme legislative organ called Suwyidan comprises 19 representatives. The prime minister of Won Buddhism is the chairperson, and below the chairperson, one male and one female occupy the two middle positions. Along with these two middle appointments, there are eighteen men and women legislators.

In 1919, Sot'aesan selected eight males from his disciples because most were males at the beginning of Won Buddhist history. Sot'aesan was the Chairperson of this first Suwyidan. This first Suwyidan was made up of only male disciples because at that time Sotaesan did not yet have sufficient women disciples.

The first woman Suwyidan(supreme legislators) was appointed in 1930(Wonki 15). Sot'aesan gave equal opportunities to his men and women disciples to be elected as Suwyidan(the supreme legislators). Women disciples could attend the supreme legislative council and give their opinion as well as have the right to vote on any kind of important decisions regarding the institutions of Won Buddhism. Not only the rights, but also the responsibilities were given to women disciples equally. Sot'aesan gave the same numbers and the same contents of regulations to his male and female disciples, regardless whether they were ordained or not(Wonbulgyo gyoso: 81-84).

He expected his male and female disciples to follow his teachings in the same way. Therefore, when one considers the women elected representatives to Suwyidan, one can conclude that Won Buddhism is a religious organization accepting women's rights fully.

III. Conclusion

As already mentioned, Won Buddhist women have equal rights to men in every respect. However, Korean women and society still have the tendency to follow the Confucian ideal of the virtuous women popular in the Chosun era. Celibacy is an important issue for contemporary Won Buddhist women, because traditional views

sometimes still prevail, and are applied unequally to men and women. Because of their own mentality rooted in Neo-Confucianism during the Chosun era, many women disciples do not want to be married in order to concentrate only on their religious lives nor are aware of the fact that they could handle their religious duties while they keep their marital status.

Won Buddhist women do not incur any obstacles in the process of becoming ordained clergy under the laws of Won Buddhism. They have enjoyed equal rights to men in every aspect including the performance of religious ceremonies. This incredible revolution transpired because of the Founder's great enlightened vision of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actualization of his vision.

However, women in Korean traditional society have been held back by marital constraints. That was the reason why Sot'aesan allowed women to have the freedom not to marry and put themselves in an inferior position. They could do this by choosing to be celibate. It did not mean that he required women's celibacy as the precondition of being his ordained disciples.

The history of Won Buddhism proves that most enlightened women during the founder's own lifetime were married women. Not only the first woman Suwyidan in 1931, but the ensuing women Suwyidan in 1943, as well were all married disciples(Wonbulgyo jonso: 1108).

The present status of Won Buddhist clergy-women is influenced by the activities and capabilities of senior women clergy. Due to Sot'aesan's philosophy and empowerment, the guarantees and constitutional law regarding women's equal rights to men continuously improved until the present. The first woman who was allowed by Sot'aesan to remain participated much later than the married women disciples who were allowed to be ordained clergy. Since the ordination of the first celibate clergy woman, Cho Chonkwon, Won Buddhism has accepted countless numbers of celibate women clergy until the present time.

However, the social situation of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has been changed. Women are able to have opportunities to have careers as well as marriages.

So, women in Korea do not need to be celibate to have independent lifestyles and to empower their own lives.

As a result, clergy-women in Won Buddhism must actualize the founder's philosophy once again. Analogous to other religions, Won Buddhism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every aspect during the 80 years of its history. An action that was the solution for a particular conditional problem eighty years ago may not be the proper solution now. The freedom for women not to marry was the answer for Korean women to empower their own lives and to prevent themselves from being trapped by the conditions of Neo-Confucian social and familial constraints. However, the very same philosophy that frees women to share equal rights with men should free women to choose their own marriage in contemporary society. The opinion of the current generation of Won Buddhist clergymen and clergy-women is that clergy-women should have the right to choose to be married or single as fully ordained clergy.

〈 Reference 〉

- Cullavagga, X., 1,4. cited by I. B. Honer, *Women Under Primitive Buddhism*.
- Ha Sangui(1991). Uisikgeajowa Sahoigeajo (Transformation of consciousness and transformation of society. *WonKwang*(Monthly magazine of Won Buddhism).
- Kim, Chichong(1981). *Keapyokuiilgg'un: The 70 years history of Won Buddhist Women*. Wonbulgyonyojachonghwadan.
- Ven. Kim Taekeo. *The Essentials of the Chongjon*.
- Wonbulgyo gyoso(The Scripture of Won Buddhism)(1991). Wonbulgyo Ch'ulp'ansa.
- Wonbulgyo jonso.
- Wonpulgyo Daechongkyong.